

길림시, 단오절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민족 전통과 현대 레저가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 선사



민족문화주간 개막식 공연무대

단오절 기간 길림시에서는 다채로운 단오 문화행사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 명절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30일, ‘중화민족공동체 의식·민족단결’을 주제로 한 길림시 민족문화주간이 송화강 기자(棋子)광장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 공연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전통 공연, 음식 체험, 민속 게임, 무형문화유산 전시 등을 통해 민족간의 화합을 구가했다.

31일 오전에는 길림민족박물관에서 ‘종정(粽情) 단오, 문화 계승’ 행사가 개최되었다.

쑤향기가 그윽한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부직 제작, 전통 복자 체험, 민족문화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체험을 제공했는바 전통 단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단오 부직은 천년의 문화를 담은 수공예품으로 민족박물관에서는 방문객

들이 직접 만들며 전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물 그리기’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역사적

유물을 스케치하며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길림시 조선족 집거지인 길림조중



시골집한식관에서 선보인 천인비빔밥쇼

근처 광장에서는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과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 등 사업단위와 사회단체들이 출연한 문예공연이 펼쳐졌으며 찰떡 시식, 천인비빔밥쇼 등 조선족음식점에서 내놓은 전통 먹거리 전시가 인기를 끌었다.

길림시 룡담산공원에서 이른아침부터 등산객들이 쑥을 채취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송화강변의 여름철 인기 명소인 월강탄에서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물놀이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같은 날 ‘2025 길림시 단오 통주시합’이 길림시 송화강구역에서 열리며 화려한 레이스가 펼쳐졌는데 8개 지역 팀이 200미터와 500미터 경주에서 승부를 겨루었다.

단오절 연휴를 맞아 길림시는 민족 전통과 현대 레저가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 차영국기자



서란 야생산삼

‘2025 세계 브랜드 모간산 대회’에서 주목

최근, 신화사 브랜드판공실과 중국 국가브랜드 네트워크가 주최한 2025 세계 브랜드 모간산 대회가 절강성 탁청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대회의 부대 행사인 <2025 브랜드농업생태협력대회 및 중국 우수품 품평회>에서 길림시 서란시의 야생산삼이 소개된 가운데 서란시당위 부서기 왕홍암이 ‘트레이서블(溯源) 중국·국민 영양건강소비 브랜드 강화 행동’ 가동식에 참가해 인삼 사례를 공유했다.

왕홍암은 ‘과일의 도시’, ‘공미(貢米)의 고장’으로 불리는 서란시는 높은 삼림피복률, 비옥한 토양, 우수한 공기질 등으로 서란 야생산삼의 생장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서란 인삼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서란에는 현재까지도 ‘점장대’(点将台), ‘청룡천’(青龙泉) 등 전설이 깃든 자연경관이 남아 있다. 서란 야생산삼은 ‘야생종자 자연번식’ 방식을 통해 생산되는바 CFCC(珍稀濒危植物森林认证)를 획득했다.

현재 서란시는 인삼 및 한약재 건강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운영을 시작해 인삼 및 한약재 정밀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미 3개 주요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다. 인삼 가공,

야생산삼술, 약식동원(药食同源) 등 3개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연간 생산액이 4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란 야생산삼은 병충해 저항성이 뛰어난바 중국 약전에서 규정된 33종의 농약 잔류 및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희귀 사포닌 및 다당류 함량이 일반 인삼보다 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서란시는 인삼산업을 100억원 규모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 지리표시인증 및 과학기술소원(科技小院) 지정을 신청중이다.

또한 인삼 재배, 가공, 유통, 연구, 관광,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인삼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행사 현장에서 왕홍암은 서란시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신화빛과 ‘트레이서블 중국 신뢰 브랜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길림세일산업(世一参业), 서란시전봉삼업(田峰参业), 길림시유원농업(裕源农业) 등 3개 기업이 ‘트레이서블 중국 신뢰 브랜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왕홍암은 “서란시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초청해 인삼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 무송용매체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

회족소학교서 사랑 나눔 행사



회족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쫄쥬를 만들며

5월 29일,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회장 리옥란)의 로경림, 리충의, 최명란 회원은 단오명절과 아동절을 맞아 길림시회족소학교를 방문, 9년째 후원중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3명을 만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협회 회원들은 학교에서 진행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단오, 로동의 아름다움을 전하다’ 행사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쫄쥬’를 만들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정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문화 리해 증진과 전통문화 계승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최명란회원은 “아이들과 함께 쫄쥬를 빚으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는 2015년부터 매년 회족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학습 용품을 지원해오면서 민족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차영국기자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련화산에서 다민족 화합 봄나들이 행사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구축 및 홍색유전자 계승’ 주제 다채로운 행사 진행



봄나들이 공연의 한 장면

일전,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는 한족, 회족, 몽골족, 시버족(锡伯族), 좡족, 묘족, 더룽족(独龙族) 등 여러 민족 대표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교수, 반석시당위 통정부 김명화 과장 등과 함께 련화산에서 ‘중화

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구축 및 홍색유전자 계승’을 주제로 뜻깊은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러 민족간의 교류와 단결을 도모하고 역사를 회고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로 마련되

었다. 여러 민족 대표들은 각자의 전통문화와 생활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뉴대감을 다졌다.

학습과 역사 체험을 통한 사명감 고취

행사 첫 순서로 김병희 회장이 반석시 당위와 정부의 세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리론 관련 지침을 전달하며 “당의 리론을 바탕으로 다민족 공동 번영과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반석련화산항일투쟁기념관을 방문, 항일영웅들의 희생과 새 중국 건설의 어려움을 되새기며 홍색유전자 계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다민족 문화 어우러진 화려한 문예공연

행사 하이라이트인 문예공연에서

는 조선족 전통 춤과 노래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협회 약기대의 <반갑습니다>와 원무곡 <산대지붕>으로 공연의 막이 열린 가운데 협회 석양홍조의 광장무 <노들강변>, <새시대에 접어들다>와 중년조의 <붉은해 변강 비추네>가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 아리랑단의 전통가무 <아리랑>과 사회자 최경준의 독창 <세상은 넓고 넓어라> 등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행사에서 여러 민족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중화민족 일가친’의 메시지를 생동하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봄나들이를 넘어 민족간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김병희 회장은 앞으로도 다민족 교류를 활성화하여 반석지역에서 민족단결의 꽃을 피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류대진.

차영국기자



길림시룩왕제약 기업 경영 활기

올해 1분기 길림시룩왕제약주식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4% 성장을 기록하며 기업 경영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몇년간 룡왕제약은 ‘건강 중국 2030’ 계획 및 길림성의 사슴과 인삼

산업 발전 정책에 힘입어 대건강산업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전액 출자 자회사인 길림시금합룩왕당의약유한회사를 설립했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생산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특허 2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기본 의약품 목록에 32개 품목, 의료보험 목록에 73개 품목이 등재되는 등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길림시룩왕제약은 2020년 길림화학공업유기그룹에 편입된 이후 정밀한 관

리와 다각화 전략을 통해 경영 성과를 크게 향상시켰다.

2024년 기준 생산액 1억 6,600만원, 매출 2억 600만원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무송용매체